



“축하합니다”...언론학석사 8명 탄생



▲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남부원장, 박주성, 교교, 정성숙, 이인희원장, 김태경, 김기섭)

201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2012년 8월 16일 (목) 오전 11시에 본교 청운관 613호에서 거행되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졸업생과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대학원 재학 중의 수고와 결실을 서로 축하했다.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1989년 개원 이래 총 590여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학기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동진(방송) : 종합편성채널 수용자의 총족에 관한 연구 ■ 이승현(방송) : 지역 방송사의 경영 성과와 사업 다각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지역 MBC 계열사를 중심으로 ■ 김기섭(스피치·토론) : 세종시대 어전회의에 나타난 의사결정과 소통의 역할 ■ 김미경(스피치·토론) ■ 정성숙(스피치·토론) ■ 교교(디지털영상) ■ 박주성(디지털영상) ■ 김태경(출판·저작권) (이상 8명)

제20기 스피치·토론 전문과정 수료식



▲ 전문과정 수료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창남부원장, 이인희원장, 장해순교수, 손백현실장, 정윤정교교, 최우성, 허윤희, 정성제, 송성원, 우현명, 이재경, 박영희)

1996년 국내 최초로 개설되고 국내 유일를 자랑하는 대학원 스피치·토론 전문과정은 6월 26일(화) 총 8명의 제20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수료생들은 이날 저녁 청운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료식에 참석해 언론정보대학원 이인희원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우현명 수료생은 ‘친구’라는 시상송으로 동료들과의 우애를 노래했다.

〈제20기 스피치·토론 전문과정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홍규, 박영희, 송성원, 우현명, 이재경, 정성제, 최우성, 허윤희

제12회 경희 언론문화인상 후보자 공모

언론정보대학원은 경희 동문으로서 국가의 언론발전과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경희의 자긍심을 높여준 언론·문화인을 선정하여 그 공을 널리 알리고자 제 12회 경희언론문화인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기다립니다.

- 수상자격 : 경희동문으로서 언론·문화 영역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자
- 대상추천 : ① 본교 동문회, 언론정보대학원 및 언론정보학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3인 이상의 본교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 제출기한 : 2012. 9. 3(월) ~ 9. 28(금)
- 심사 : 본 대학원 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 접수처 :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실
- 문의 : 02)961-0560~1
- 홈페이지 : <http://khu.communication.ac.kr>

신임 이두황교수 부임

2012학년도 2학기 이두황(조교수), 언론정보학과 신임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두황교수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알라바마대(University of Alabama)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두황교수는 2학기에 우리 대학원 ‘커뮤니케이션이론’ 강의를 맡게 되었다.

2012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열려

2012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9월 1일(토) 오후 4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619호에서 개최되었다.

이인희 언론정보대학원장과 김창남 부원장을 비롯한 언론정보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본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시작 전에 대학원

구성원들이 모여 상견례를 나누는 첫 공식 행사이다.

2부 행사에서는 신입생들이 학교와 학업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수강신청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2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저널리즘 학과(4명)

■ 방송 전공 : 김봉석, 박성근, 염격, 조용욱

▲ 전략커뮤니케이션 학과(12명)

■ 홍보전공 : 구동분 ■ 스피치·토론 전공 : 구화선, 김지아, 김향숙, 김현진, 박수경, 박지성, 이성철, 신정은, 신지예, 최우성 ■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 : 방준복

▲ 문화콘텐츠 학과(4명)

■ 출판·저작권 전공 : 박경재 ■ 대중예술 전공 : 안태정, 조춘호 ■ 디지털영상 전공 : 강경모



소셜 미디어 시대의 빅 데이터와 정치



이 두 황 교수
(언론정보학과)

바야흐로 '빅 데이터(Big Data)'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관련기사가 나오면서 어느 때 보다도 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빅 데이터란 조직이나 서비스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발전은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복잡한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머니볼(Money Ball) 이론을 야구에 적용해 큰 효과를 거둔 미국 메이저 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장 빌리 빈(Billy Beane)이 그 대표적 사례다. 빌리 빈은 야구에서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만년 하위 팀이었던 오클랜드를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폴 데포데스터(Paul DePodesta)를 영입, 선수를 직접 관찰하고 재목을 고르는 기존의 스카우트 방식을 거부하고 출루율·장타율·사사구 비율 등 다른 여러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팀의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를 거뒀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모바일 장치의 확산으로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장치들을 통해 어디서든 소비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표현을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또, 전자태그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행동 패턴을 데이터화해 저장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의 확산 역시 빅 데이터의 출현을 알리고 있다.

빅 데이터 시대는 단순히 늘어난 정보의 양의 빈도수나 패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 뿐만 아니라, 확장된 데이터의 다양성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분석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영데이터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 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 관리),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생산관리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 고객 관계 관리) 등의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제되어 있고 의미도 명확한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 분석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사진, 오디오, 비디오등과 같은 정제되어 있지 않고 의미도 불명확한 기업 외부의 비정형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은 텍스트 분석(Text mining), 평판분석(Opinion mining), 소셜 네

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등으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 데이터의 출현은 바닥의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정치 분야의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다. 정치 분야의 빅 데이터 분석은 민심을 읽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선거 캠프는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활용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했다. 오바마 캠프는 인종·종교·나이·가구형태·소비수준과 같은 기본 인적 사항으로 유권자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 투표 여부·구독하는 잡지·마시는 음료 등 유권자 성향까지 전화나 개별 방문을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오바마 캠프 본부로 전송되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보트빌더(VoteBuilder.com)' 시스템의 도움으로 유권자 성향 분석, 미결정 유권자 선별, 유권자에 대한 예측을 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지도'를 작성한 뒤,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하는 등 오바마 캠프는 비용 대비 효과적 인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 결과는 승리였다.

이 같은 정치 분야의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한국에도 소리 없는 빅 데이터 열풍이 다가오고 있다.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 역시 소셜 미디어 활용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총선 공천에서 트위터 지수를 활용해 후보를 정하는가 하면 기업체 대표를 초청해 SNS 활용법 강의를 듣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변변히 빗나가면서 거대하게 흐르는 민심을 읽기 위한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빅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아전인수식(我田引水)의 정보놀음으로 향할 경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사실 일반인이 소셜 미디어의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 할 수 있다. 관련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전문 지식과 훈련이 필수적인 미국의 노드엑셀(NodeXL: <http://nodexl.codeplex.com>)이나 영국의 웹보메트릭 애널리스트(Webobetric Analyst: <http://lexiurl.ac.uk>)같은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구글, 빙(Bing) 같은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검색메뉴에서 검색어를 이용해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마다 접근 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깊이가 다르기 쉽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고 분석 작업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 정보와 소셜 미디어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더욱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정치 데이터를 엄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인과 연구자와 소비자인 사람의 몫이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쉽게 얻을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큰 울림을 갖는다.



‘제5장’의 언론정보대학원 이야기

이 어 령

24대 원우회 부회장 스페치 · 토론전공(44기)



처음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두가지 마음을 나눠 안고 입학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입학하여 44기 부기장을 맡았는데 이제는 부회장이 되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훌륭한 교수님들, 소중한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원이라는 첩터에서 4학기동안 4장의 언론정보대학원 이야기를 채웠습니다. 그 4장이라는 이야기를 채우는 동안 어떤 동기들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결혼을 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고 어떤 동기는 출산을 앞두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교시라는 방과 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와 서

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 받았습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 그대로 원우님들은 낮에는 고된 업무를, 저녁에는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 주 학교 수업이 있는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 학업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는 24대 원우회를 보내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파티, 스승의 날 행사 그리고 엠티 등 교수님들과 여러 원우님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매학기가 되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여러분들과 복학생 분들과 함께 학교란 장소에서 많은 인연들의 또 다른 시작됩니다. 원우님들이 매학기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가는 동안 ‘5장’의 언론정보대학원 이야기가 부족한 부분 없이 가득 채워 질 수 있도록 남은 한 학기 더 부지런히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중간에 낙오 없이 여러분의 언론정보대학원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47기 속초 모꼬지 수학여행만큼이나 깊은 추억으로 남아

배 상 복 신문 · 잡지전공(47기)



▲ 언론정보대학원 47기는 지난 6월 23일 강원도 속초로 1박2일 모꼬지를 다녀왔다. 모꼬지에는 이인희원장과 김창남부원장이 참가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승래 동기가 버스를 제공했고 방송국에 근무하는 윤재구 동기가 콘도를 마련했다. 다른 동기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조금으로 도왔다. 엠태원 원우회장도 기꺼이 여비를 보태 주었다.

가장인 임평순 동기와 부기장인 박연화 동기의 역할도 컸다. 특히 부기장은 지난번을

선 선배, 그리고 국제교육원 박천에님과 행정실 이영태님도 함께 해 자리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즐거웠던 순간들이 떠올라 다시금 행복에 젖어든다. 동기를 비롯 1박2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참가하지는 못했어도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한 학기 동안의 즐거웠던 기억과 속초 모꼬지의 아름다운 추억을 머금고 47기는 어느 기수보다 보람있고 재미있는 대학원 생활을 이어갔으면 한다.

다시 맛보는 수학여행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할까. 1학기를 마치면서 떠난 47기의 속초 모꼬지는 그 옛날 수학여행 못지않은 행복감을 주었다. 동기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학창시절의 순수함을 다시 보는 듯했다. 1박2일 동안 가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모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힘을 합친 결과다. 만행으로 사업을 하는 김

왕리 모꼬지에 이어 이번에도 가락시장에서 손수 시장을 봐 음식을 장만하고 조리해 많은 식구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동수 동기는 신세대 MC답게 타고난 재치와 해박한 지식으로 이동하는 내내 우리의 배꼽을 잡게 했다.

이인희 원장님과 김창남 부원장님의 참여는 자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 후지모토 교수님도 함께 하시어 일본의 재난 대비와 관련한 특강까지 해주시면서 의미를 더했다. 45기 김효



▲ 언론정보대학원 전체단합대회가 이인희원장을 비롯, 전체 기수가 모인 가운데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다.



세종시대 어전회의에 나타난 의사결정과 소통의 역할

김기섭 스포치·토론전공



본 연구는 15세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군 세종의 과학문명과 태평성대의 저력이었던 어전회의의 의사결정과 소통의 역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틀은 구란과 히로가와(Gouran & Hirokawa)의 기능주의적 집단 의사결정이론에 입각하여, 질 높은 의사결정의 네가지 필수요소인 문제분석, 목표설정, 대안확인, 대안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종시대 어전회의의 의사결정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세종은 문제분석에 있어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상황 등 현실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을 밟았다. 둘째, 세종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경청했으며,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세종은 대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였고 외교 및 국방 등 중요한 사안일수록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 대안평가에서 대안이 갖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시험한 뒤 정책 결정에 반영했다.

어전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통의 역할을 촉진과 방해, 대응 작용으로 살펴본 결과, 세종은 대마도 정벌을 제외한 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하고 때로는 직접 토론에 나서는 등 대안과 목표에 집중하는 촉진의 작용을 한 반면, 신하들은 때 사안마다 반대하는 등 방해 작용으로 일관했다. 촉진과 방해 작용 외에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의사결정을 돕는 대응 작용도 나타나는데, 장기간의 정책 논의과정에서 찬반의견이 오가고 이를 재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세종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했고, 만약 세종처럼 찬란한 위업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이 시사점은 오늘날 우리의 회의문화를 되돌아보고 한국적 회의문화의 전형을 찾는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며, 세종과 신하들이 함께 일궈낸 600여 년 전 의사결정의 경험은 한국형 의사결정과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향후 그 모델과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종합편성채널 수용자의 충족에 관한 연구

김동진 방송전공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수용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충족을 탐색했다. 수용자들의 이용동기와 충족을 유형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미디어, 채널, 또는 프로그램에 적용한 이용과 충족 접근(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바탕으로 대학생 수용자의 충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종합편성채널의 대학생 수용자는 PC, IPTV, 모바일, DMB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방송을 시청하며 선호 장르는 뉴스/보도/시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둘째, 추구충족 요인은 일상참여/트렌드, 정보/시사성, 오락성, 시간보내기/대리만족, 성적흥미, 소수자 다양성 등 여섯 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획득충족 요인은 추구충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종합편성채널은 대학생 수용자의 기대에 전반적으로 못 미치고 있었다. 여섯 요인 중 시간보내

기/대리만족만 추구충족(GS)보다 획득충족(GO)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요인에서 획득충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충족 요인들에 대해 각각 선호 장르로 구분한 유형에 따라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추구충족은 3개 문항, 획득충족 1개 문항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주로 유형3(저관여형)과 유형4(엔터테인먼트형)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다섯째, 선호 장르에 따른 유형별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이용 전 추구충족과 이용 후 획득충족 간 차이는 일상참여/트렌드, 오락성, 성적흥미에서 엔터테인먼트형이 다른 유형보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형의 응답자들은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과 화제 거리가 되는,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수용자의 선호 장르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하는 편성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방송사의 경영 성과와 사업 다각화 전략에 관한 연구 -지역 MBC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승현 방송전공



본 연구의 목적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운 매체 환경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MBC 계열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익성을 지키며 수익성도 담보하는 지역 방송사의 바람직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지역 MBC 계열사의 경영 현황은 어떠한 경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지역 MBC 계열사의 경영을 측정 지표로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로 살펴본 성장성은 대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과 순손익을 통해 측정된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부채 비율을 통해 측정된 안정성은 높게 나타났다. 지역 MBC 계열사는 안팎으로 조성되어 있는 위기감에 비해 경영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지역 MBC 계열사의 생존 및 성장 전략으로 어떠한 방

안들이 이용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공영 방송인 MBC의 사업들은 이미지 개선, 영향력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문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또 심층 인터뷰 결과 면밀한 시장 분석에 의한 장기 사업이 아닌 단발성 이벤트가 많은 것은 최고경영자(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한시적이고 본사에서 임명되어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한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지역 MBC 계열사의 바람직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모색한 결과, 지역 MBC의 수익 구조에서 본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자체 영업 활동을 통한 광고 수익 보다 한국방송광고 공사를 통한 연계 판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외부 효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 MBC 계열사의 사업 다각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방송사가 단독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방송사의 수익 사업은 지역의 문화·경제 요인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법

저자 : 정성숙 (스피치 · 토론전공)

『그녀가 살아가는 법』은 제목 그대로 지은이 정성숙의 삶의 기록이다. 그녀는 속된 세상에 몸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다. 그 당당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이 책을 펴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바라며,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시할 때 함께 나눌 게 많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을 속살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만의 또 다른 삶의 표현이자 방법이기도 하다. 책에서 지은이가 펼쳐는 시와 낭송, 궁정메시지, 감사, 이미지메이킹은 정성숙 그녀 자신의 삶의 표현이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는 이유를 알게 하고 지친 삶을 위무하며 내일을 꿈꾸게 할 것이다.



기자 수업

저자 : 최철 (정치커뮤니케이션전공)

현 CBS 정치부 기자 최철이 쓴 <기자 수업>은 11년차 현직 기자가 들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자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간 대학 언론인반으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을 때마다 예비 언론인을 위한 실용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을 느껴 왔던 저자는 막연한 환상이 아닌 실제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가감 없이 소개한다.

<기자 수업>은 취재 요령과 기사 작성의 꼼꼼한 노하우 등 매뉴얼로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자기고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자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반쯤 직원 리모델링하고 싶은 상사

저자 : 함선희 (스피치 · 토론전공)

우리는 끊임없이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부하직원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저 적당히 일하려는 직원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길 바라는 상사 사이의 갈등의 골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또 동료, 부하, 상사를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후회 없는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을 총 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브랜드가 말하게 하라

저자 : 노진화 (홍보전공)

당신의 브랜드는 관심을 끄는가? 공감을 부르는가? 감동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재미있는가? 스토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무장해제한다.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의 이론과 사례, 실전을 한 권에 담았다. 실무자들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워크북 형식을 빌렸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



오늘 하루도 당신거예요

저자 : 김용신 (스피치 · 토론전공)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그대'들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그대와 여는 아침]의 6년차 안방마님 김용신 아나운서의 에세이. [그대와 여는 아침]은 CBS 음악FM의 간판프로라고 할 만한 인기 방송이다. 아침마다 두 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소통하지만 늘 못 다한 말이 생각난다는 그녀는, 방송을 마치고 이런 저런 글을 적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게 쌓인 글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매일 아침 그녀의 마지막 멘트인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를 제목으로,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지나가버린 어제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한가득 담아 사연을 보내온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현재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점이다. '어제'에 밀려나고, '내일'에 추월당한 그대들의 '오늘'을 찾아주는 김 아나의 특별한 방법. 소박하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80여 편의 이야기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다

저자 : 김태경 (출판 · 저작권전공)

22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카피라이터에서 AE로, 그리고 다시 프로듀서로 직업과 직장을 바꾸며 지치지 않고 일터를 지켜온 이 책의 저자 김태경이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담긴 책. 직장과 연애, 가족, 결혼, 육아를 모두 짊어지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온몸으로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광고계와 방송계 같은 혹독한 마초조직에서도 일과 삶을 양손으로 저글링하며 즐겁게 지내왔다.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독한 프로근성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독하게 성공하라고 다그치거나 슈퍼우먼이 되라고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20년 먼저 경험한 여자선배로서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오히려 전력질주하지 않는 법, 즐기되 기분 좋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는 법,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더 길고 찬란하게 누리는 금쪽같은 노하우를 알려준다.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스피치

저자 : 김지민 (스피치 · 토론전공)

일반인 뿐만 아니라 방송인을 꿈꾸는 사람들과 이미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위해 방송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엮었기 때문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모자란 내용들은 끊임없이 채워 넣고, 넘치는 내용들은 가지를 치면서 속을 튼실하게 다져 갈 예정이다.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저자 : 배상복 (신문 · 잡지전공)

현 중앙일보 어문연구소의 배상복 기자와 일본어 전문 번역가이면서 번역투 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오경순 교수가 만나 우리가 어렵게, 혹은 어설프게만 알고 있는 우리말의 이면을 공개하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안에 담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말 중에 잘못된 표현들이 적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혁신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김 봉 석 방송전공(48기)



언제 부터인가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소통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문화가 생겼다. 그렇다. 최근 불통의 시대에 소통 메시아처럼 등장한 나꼼수의 인사법이다. 소통의 부재니 억압의 아이콘 속에도 정의의 여론은 자연적으로 자아 치유의 문화가 자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속은 순리가 아닌 변화의 고뇌

가 창조와 혁신으로 도전, 발전되어 지는 것 같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일본 민영방송사인 tv-아사히서울지국에서 9년차의 외신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지난 9년간 다양한 국내의 미디어환경에서 체득한 실무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내외신의 미디어 환경과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저널리즘 외교발전에도 다소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인희원장님의 인재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난 다른 대학원에도 합격해 해 둔 상태였었지만 초면부지의 나에게 직접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해 주셨고, 나 자신의 변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보자는 진솔함, 그리고 지금도 후지모토 토시카즈 객원교수와의 인연, 일본어 공부 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정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된 것 같다. 그렇다.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각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저널리즘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구대 김성해교수의 영향이 크다. 그가 한국 언론재단 전문위원으로 재직 시 편찬한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를 읽고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되었다. 지금껏 외신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언론의 공공성, 보도성 즉, 언론인의 사회 전반의 환경감시와 보도에 치우친 저 자신의 편협 된 언론관에 사로잡혀 생활하다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연결되어 거의 모든 것들이 실시간 정보화 되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자국의 홍보와 자국의 세계화, 그리고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과거 소수의 전통적 외교(외교관, 고위관료, 정치인, 기업인)를 넘어서 저널리즘 외교가 중요한 미디어의 한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다니엘 핑크가 “독자의 신뢰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나온다”고 했듯이 국가의 신뢰도 공공외교, 미디어외교로 크게 좌우되고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한발 앞서 저널리즘외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공공매체를 통한 자국의 공공외교와 미디어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된 언론관으로 나누어진 상황이 시대 착오적이고 안타깝고 부끄럽다. 향후 외신의 눈으로 보는 한국 사회현상과 미디어의 여러 차별성 그리고 한국적 저널리즘외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

세계는 사상적 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정체된 언론관으로는 새로운 시대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변혁의 마인드로 새로운 언론관을 배우고 정립하고 싶다. 선진사회는 짝퉁과 진품을 가려낼 줄 아는 시민이 많은 사회일 것이다. 진실과 진전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회가 High Society가 아닐까 한다.

혼 · 창 · 통 - 대학원 생활 백서

임 평 순 스피치·토론 전공(47기)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에서 일하고 있고요, ○○ 분야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었다. 얼굴과 이름이 매치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어느 정도 알 듯 하니 여름방학이 됐다. 그만큼 대학원은 자신을 알리고, 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전공과목과 관련한 것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즉 사교장이었다. 방학으로 이런 사교장이 휴장 중이니 적잖이 허전하다.

대학원 한 학기를 보내며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는 단어가 하나 있다. 전공과도 관련된 것이다. 바로 ‘소통’이다. ‘소통’이란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그에 관한 수업을 듣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 왔다. ‘소통’과 관련한 책도 모조리 구해 읽고 있는 중인데,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지훈 저자의 ‘혼 · 창 · 통’이란 책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성공하려면 ‘혼 · 창 · 통’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무얼까? 먼저 혼이다. ‘혼(混)’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혼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물음의 과정이다. 즉 혼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나는 이 혼을 대학원이란 사교장에 대입해 이렇게 풀이하고 싶다. 혼: ‘혼자 놀지 말자’(You are not alone)이다. 이 사교장에는 아군이 많다.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혼자 놀지 마시길

권유한다. 학교 앞 막걸리는 꽤 맛있고 저렴하며 분위기가 좋다. 회사 앞 술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다음은 ‘창’이다. ‘창(創)’은 혼을 노력과 근성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창은 매일 새로워지는 일이다. 창은 익숙한 것과의 싸움이다. ‘나름대로 창에 대한 해석을 해본다. 창: 창피해 하지 말고 어울려라. 47기 동기 기장을 맡고 있는데 몇 명의 동기는 모임에 창피해서 못나가겠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창은 익숙한 것과의 싸움이고 매일 새로워지는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인 대학원에서 창피해 하고 혼자 놀면 진짜 혼자가 된다. 스스로 삶의 공간을 좁힘으로써 어둠에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아는 정보에서도 소외되기 십상이다.

다음은 통이다. ‘통(通)’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이다. 통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통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다. 내 생각과도 같다. 통: 통하라... 통해야 산다. 전화번호, 정보, 서로의 관심사를 통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한다. 서로의 관심사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또 누가 알겠는가. 그러다 보면 나 같은 싱글이 짝을 만나 백년해로 하게 될지, 사실 그런 꿈을 꾸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우리 원우들은 모두 ‘혼 · 창 · 통’을 가슴에 새기면서 2학기에도 멋진 비전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2학기에는 새로운 48기 후배도 들어온다. 대학원이란 훌륭한 사교장에 오신 후배들을 환영한다. 혼-창-통.



대학원 졸업은 “대단히 기쁜 일”

김 태 경 스피치·토론 전공



대학원을 졸업하는 일이 이토록 큰 기쁨일 줄 몰랐습니다. 졸업의 기쁨에 고무되어 또 다른 도전을 꿈꾸는 올 여름은 폭염도 비껴가는 듯합니다.

기왕 공부 시작한 것 그냥 달려버리자는 작정에 박사과정(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도 입학했습니다.

컬럼비아 의과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야코브 스티븐은 “8년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서 단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 가능성이 세 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 1994년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의학협회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을 더 잘 받은 사람들일수록 치매의 징후를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며 인간을 상대하는 복잡한 직업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스티븐의 주장입니다.

교육이 주는 대단한 기여에 대한 야코브 스티븐의 연구 결과가 굳이 아니더라도 대학원을 다니며 제게는 “나은 사람 김태경”으로의 변모가 하나 둘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바쁘다 보니 딴 생각, 딴 짓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주는 대단한 영적 청량감 덕분에 저절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 명랑해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까지 오고 가며 걷는 일이 많아지고 끼니 거를 일이 많다 보니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어 나가며 사고력, 집중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할 때, 기획서를 작성하며 여러 논문을 비교, 분석하는 버릇이 붙은 것도 모두 대학원 학업 덕분입니다. 대화하는 능력, 문장능력이 월등히 좋아졌음은 물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소모만 하며 사는 것 같아 늘 허기졌었는데 채우는 작업

이 한편에서 이루어지니 충만함과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에서 학교까지 왕복 세 시간 반 통학거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고 지각을 하며 헐레벌떡 학교에 도착할 때,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교수님들 눈치도 많이 보였고 때로는 기대가 컸던지 학업에 대한 성취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굽이굽이 오르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 한 학기 한 학기를 어렵게 마치며,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붙었고 스스로의 무식함을 절감하며 차분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얼마 전 회사 동기 모임에서 여러 언론정보대학원에 대한 비교가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타 대학원에서의 경험담을 들으며 우리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정말 좋은 대학원임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학업분위기가 그 어떤 곳보다도 뜨겁고 엄격한 곳입니다. “경희 언론정보대학원은 공부를 무지 시킨다. 그래서 경희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는 알아준다.” 이런 평가가 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박사과정에 합격한 것도 우리 대학원에 대한 외부의 좋은 평가가 크게 한 몫 했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조교님, 교수님들이 모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주시는 따뜻한 곳도 많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 보단 정도를 지키며 학생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학생 중심이 되는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이곳의 학생임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부족 하다 부족한 제자 김태경을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신 스승님들께 이 졸업장을 바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눈에선 눈물이 그렇그렇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의 졸업생임을 늘 자랑으로 여기며 비굴치 않게 살겠습니다.

화려한 나의 외출

우 현 명 스피치·토론 전문과정



50이 넘는 외출은 쉽지 않았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었다. 작년의 일이다. 스피치리더십 방과후교사인 나는 방과후수업교사 연수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장해순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새로운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다. 온라인의 제한된 공간이 너무나 아쉬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의 어려움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가슴을 확 달구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사이트를 찾았다. 언론정보대학원으로는 국내최초, 국내 유일의 대학원 스피치·토론과정 임을 알고 욕심이 생겼다. 장해순교수님의 안내전화를 받고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대학생과 고3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야기 하기가 힘들었다. 생각해 보자고 한 남편은 답이 없었다. 수강신청 마지막날 다시 용기를 내어 물으니 등록금은 직접 마련해서 가라는 대답이 왔다.

드디어 50이 넘는 나의 외출은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옆에 있는 테크노밸리에 살고 있다. 수업이 있는 화요일이면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대전역에 주차를 하고 기차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서울에 갔다.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맞은편에 있는 경희대학교 총동문건물에서 장해순교수님의 스피치·토론수업 열강을 들으며 행복했다. 보

도국장님, 스피치학원원장님, 금융평가이사님 등 사회에서 스피치로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 60전, 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 나이 구분 없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즐거웠다.

또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초청하여 공개 강의를 하였다. 심리학 교수인 William Mouston Marston은 인간의 유형을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누었다. 서로 자기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테스트를 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향적이고 독단적이며 결정을 빠르게 하는 주도형인 사람이 느리고 자신감이 없고 변화를 꺼려하는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서로의 특성을 모르고 내 주관대로 상대를 단정 지으며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서로를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이다. 성당에 다니는 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며 기도했지만, 정작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였다.

토론의 이론적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신 허경호교수님, 입학식, 졸업식에 자리를 빛내시고 격려 주신 이인희원장님, 김창남부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박스를 들고 다니며 저녁과 간식을 챙겨준 정윤정조교에게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같이 웃고, 장해순교수님의 열강을 들은 우리 동기 선생님들께 멋진 인연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내 인생, 만남의 축복이자 행운”



80년대 중반 KBS 신인탄생 연 5주 통과(요즘 서바이벌 오디션 같은 음악 프로그램)로 가요계에 데뷔, 다음해 MBC 서울국제 가요제 인기상을 수상,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요계에 데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나간다는 말로 “떠오르는 셋별, 비디오와 오디오를 겸비한 유망한 신인”으로 언론과 방송은 띄워 주었고 덕분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연예계의 삶은 생 초보에 신인이었던 저에게는 매정할 정도로 추웠지만 많은 팬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노래에만 매진했던 시간들...

언제부터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에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삶의 자극이 필요한 새로운 열정,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다 소진 되어버린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역시 배움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 생활을 꿈꿔왔던 그 설렘으로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살

았던 시간들, 지방공연 갔다가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갖길로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위험스럽게 열심히 다녔던 경희캠퍼스, 가끔은 맨 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수업을 듣기도하고 가끔은 피곤함 때문에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도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어떤 색깔로 색칠을 해야 내 인생을 멋지게 꾸밀 수 있을까 심오하게 고민했던 꿈 많고 순수했던 지난 시절로 가끔 되돌아 갈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예쁘게 채워가겠습니다.

학문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때로는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이인희 원장님과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대학원 교수님들, 소소한 것까지 배려해 주신 행정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자락에 경희인들을 만난것은 큰 행운이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마음을 되새키지 않기 위해서 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소중한 시간 잘 채우시고 기쁨가득 행복가득 한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학사일정 (언론정보대학원 2012학년도 2학기)



9.4(화) 9.4(화) - 9.7(금) 9.10(월) - 9.14(금) 9.17(월) - 9.18(화) 9.25(화)	개강 수강신청 정정기간 수강신청 확인/전공기초 종합시험 원서접수 전과 신청 학위논문대체과목신청서 마감/ 논문지도교수배정(변경)신청서 제출 마감 추석연휴
9.29(토) - 10.1(월)	
10.3(수) 10.4(목) 10.10(수) 10.22(월) 10.22(월) - 10.26(금) 10.23(화) - 10.25(목)	개천절 논문지도교수배정(3기) 전공기초종합시험(3기) 전공기초종합시험 합격자발표 전공필수종합시험 원서접수 2학기 중간시험
11.2(금) 11.7(수) 11.19(월) 11.19(월) - 11.23(금) 11.23(금) 11.29(목)	논문예비계획서 마감(4기) 전공필수 종합시험 실시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 발표 2013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 전공필수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학위논문제출승인서(심사용논문) 제출마감
12.1(토) 12.3(월) - 12.14(금) 12.10(월) - 12.14(금) 12.18(화) - 12.20(목) 12.25(화) 12.28(금)	2013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석사학위 논문심사(5기) 2013학년도 전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학기 기말시험 성탄절 2학기 성적마감
1.1(화) 1.4(금) 1.14(월) - 2.1(금)	신정 학위논문제출(최종 완성본) 201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2.9(토) - 2.11(월) 2.12(화) - 2.22(금) 2.20(수)	설날 1학기 등록 및 수강/휴학 신청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전기)

공지사항



■ 2012학년도 2학기 전공 주임교수 안내

- ▶ 방송 전공 : 이정교 교수
- ▶ 신문·잡지 전공 : 이종혁 교수
- ▶ 광고 전공 : 김태용 교수
- ▶ 홍보 전공 : 박종민 교수
- ▶ 스피치·토론 전공 : 허경호 교수
- ▶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 : 김창남 교수
- ▶ 출판·저작권 전공 : 이인희 교수
- ▶ 대중예술 전공 : 이기형 교수
- ▶ 디지털영상 전공 : 조수영 교수

■ 학생증 인터넷 신청 안내

1. 스마트카드 발급 사이트(<http://ucard.khu.ac.kr>)에 접속하여 ID(학번)와 PW(주민번호) 입력 후 절차에 따라 진행
2. 저장된 발급신청서 인쇄
3. 발급신청서(은행용)를 인쇄하여 날인 및 신분증 사본과 함께 행정실 제출
4.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2012학년도 주차권 할인 규정 안내

1. 주차관리소에서 주차비 정산시 학생증 제시
2. 할인금액 : 5시간까지 1000원, 5~10시간까지 2000원
3. 학생증 미지참시 일반요금 부과, 행정실 비치된 학생확인증 대체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1. 사용자 ID : 학번 입력, PW : 초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설정
2. 수강신청 및 수강 확인, 개인 학사 정보 변경 등이 가능한 시스템

■ 언론정보대학원 발전기금 납부 안내

1. 매그놀리아 스토리 : <http://magnolia.khu.ac.kr> 접속 후 온라인 약정을 통해 소액 기부 가능
2. 무통장 입금 : 다음의 통장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고 행정실로 입금 내용 전달 (하나은행 278-810023-98065)
3. 해택 : 연말정산 또는 종합과세신고서 연간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통계분석 강좌 신설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2학기부터 전공선택으로 신설되는 <통계분석> 강좌는 학술논문의 통계 및 데이터 분석기법을 배울 수 있으므로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